

마의 에콜로지성

POP 광고로 판매촉진

일본마방적협회에서는 2001년 5월부터 마제품의 소매점에서 「사람과 지구환경에 착한 마」라는 POP(Point of purchase : 가게 앞, 가게 앞의 광고)을 만들어 소매점 앞에 세우고 판매촉진하고 있다.

마에는 저마(ramie), 아마(flex), 대마(hemp) 등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의류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저마는 다년생으로서, 열대지방에서는 1년에 6번 수확할 수도 있다고 하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라면 보통 일년에 3회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저마는 성장하면서 많은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하고 산소(O₂)를 내뿜어, 에콜로지성이 뛰어나다.

마의 역사를 보면 면보다도 훨씬 전부터 동양에서 재배되어 사람들의 옷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용품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동양사람들과의 친화성이 각별하며, 특히 흡습성이 좋아 여름옷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